

문화

사람 없이 신뢰로 운영되는 ‘병윤네 무인마트’

학교 조경담당 공병윤 직원

기호웅 기자 kihodori2@khu.ac.kr

무더위가 절정을 달했던 8월 여름날, 서천동 사거리 달궈진 아스팔트 대로변에 포장마차 하나가 덩그러니 서있다. ‘병윤네 무인마트’다. 띄약별 아래 포장마차는 어느 때와 같이 평화롭다. 허름한 모습에 발걸음이 망설여지지만 ‘병윤네 무인마트’는 인근 주민과 자취생 사이에선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명소다. 지난달 17일, 3년째 같은 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무인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공병윤(55) 씨를 만나 봤다.

‘병윤네 무인마트’는 이름 그대로 사람 없이 운영되는 야채가게다. 줄지어 있는 야채봉지를 골라 구매액수만큼 바구니에 돈을 넣어 계산하면 된다. 이런 낯선 가게 운영방식에 많은 사람들이 주인의 실체를 궁금해 한다. 무인마트를 운영하는 공병윤 씨는 사실 우리학교에서 조경작업을 담당하는 직원이다. “학교 일을 마무리한 후 저녁에는 농사일을 해야 하는데 가게를 돌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무인마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공 씨는 우리학교와 인연을 맺기 전엔 39년간 제과제빵사로 일했다.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빵을 만드는 일에 대해 자부심이 있었지만 변화하는 제빵시장 환경에서 동네빵집 운영은 쉽지 않았다. 공 씨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빵집들이 등장하면서,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고 맛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네빵집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게 됐어요.”

하지만 빵집폐점이 오히려 인생의 전화위복이 됐다는 공 씨, 이 기회에 오래 전부터 꿈꿔오던 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는 “농사를 짓겠다고 결심하는 일도, 처음 농사를 짓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좋아하는 일이다 보니 하루 종일 밭에 나가있어도 힘든 줄 모르고 어느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곧 농사일이 손에 익었죠.”

그는 좁디좁은 주방에서 오랜 시간 일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연을 느끼며 일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맞는 길임을 알게 됐다고 한다. 처음엔 작은 규모의 임차농으로 시작했지만, 주변인들에게 성실성을 인정받으며 약 200여 평으로 규모를 늘렸다. 학교 근처 야지에서 생산되는 공씨네 야채는 매일



3년 전부터 무인으로 운영되는 ‘병윤네 무인마트’와 공병윤씨

“학교 일로 가게를 돌볼 시간이 없어 무인마트를 운영하게 됐어요. 무인마트다보니 돈과 물건이 10% 정도 유실되고 있지만 가게의 취지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의 양심을 믿기 때문에 걱정 없어요.”

신선한 상태로 무인가게에서 손님맛이를 준비한다.

무인가게라 하면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면 어찌지?’, ‘바구니에 있는 돈을 그냥 가져가면 어찌지?’ 라고 우려할 것이다. “사업 초기에는 30%정도의 손실이 있었지만 점차 사람들이 가게의 취지를 이해하기 시작해선지 도난사고는 점차 줄어들어요. 지금도 물건과 돈이 10%정도 유실되고 있지만 무인마트를 유지하기 위해선 이 정도는 감수해야죠.” ‘병윤네 무인마트’에는 감시카메라가 있다. 하지만 사실은 모형이다. “진짜 감시카메라를 달아서 물건이나 돈을 그냥 가져가는 사람들을 잡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판단해 주시길 바라고 있어요.” 도난사고에 의한 손실보다도 무더운 날씨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더 크다. 공 씨

는 “우리가게에서 취급하는 주 야채는 상주인데 올여름 무더위로 인해 이파리가 모두 타버렸어요”라며 흉작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공 씨는 학교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우리학교 학생들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다. “학교 일이 끝나고 가끔 무인마트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자신을 알아봐주고 인사해줄 때 얼마나 고마운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학교의 외국인 학생들도 곧잘 ‘병윤네 무인마트’에 방문하는데 신기하며 고맙다고 말했다.

무인운영과 포장마차의 형태로 인건비와 임대료가 빠져 ‘병윤네 무인마트’에서 판매되는 야채들은 다른 마트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또한 그는 무인마트에서 판매하는 모든 야채들은 농약 없이 재배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맛이 좋고 인체에도 무해

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병윤네 무인마트’에는 매일 30여 봉지의 야채들을 각각 1,000원에 제공하면서 신선함과 저렴한 모두를 놓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전하는 말을 부탁하자 공 씨는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취업에 공부에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우리학생들 힘냈으면 좋겠어. 내가 감히 쉽게 조인 할 수는 없지만 직업의 안정성만을 쫓는 것은 위험한 것 같아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 좋아하는 일이라면 어떠한 형태로든 일단 시작해보길 권하고 싶어요”라며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아직 시작은 미약하지만 정식으로 점포를 내는 것을 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그는 오늘날 취직 또는 진로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적잖은 울림을 주고 있다.

세계 초일류 융복합 대학

DGIST

2017학년도 봄학기 대학원 학생모집

21C 세계 융복합 과학기술의 중심, DGIST에서
지식창조형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로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봄학기 전형 원서접수

10.13^{Thu} ~ 10.27^{Thu}

전공 오픈랩

일시	장소
9.24(토) 12:00~17:00	DGIST 컨실리언스홀 L29 및 각 전공별 장소

- DGIST 무료셔틀버스 운행
- 기관 및 입학전형 소개, 전공 소개, Lab Tour 등
- 시외 교통비 지급 및 간단한 중식, 기념품 제공
- ※ 위 오픈랩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입학홈페이지 참조)

수도권 면담형 설명회

- 개최일자 : 매월 둘째주 금요일
- ※ 전공별 개최일시 등 세부일정은 입학홈페이지 참조
- 장소 : DGIST 서울홍보센터
- 전공별 교수와의 면담 운영(약 1시간 50분 진행)
- 사전신청 필수(신청자가 없는 전공은 설명회 미실시)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DGIST 입학홈페이지 참조

온라인 양식 제출
- admission@dgist.ac.kr으로 송부

전공별 모집과정

전공	과정
신물질과학전공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정보통신융합공학전공	※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전공의 평가결과에 따라 통합과정이 아닌 석사과정으로 입학가능
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	석사과정, 박사과정
로봇공학전공	※ 석사과정 학생은 1학기의 수학과정을 마친 후 소정의 절차를 통해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전환 가능
뇌·인지과학전공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뉴바이올로지전공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장학혜택 및 특전

※ 전공별 특성화된 장학혜택은 각 전공 홈페이지 참조

분류	내용
납입금 면제	전원 국비장학생 선발
교육 및 연구장려금 지원	▪ 박사과정 : 13,680,000원 + @/년 ▪ 석사과정 : 7,440,000원 + @/년
기숙사 입주	전원 입주 가능
해외연수 실시	전공별 해외 유수대학연수 지원(존스홉킨스 의과대학, ETH Zürich, UC Berkeley), 국제 심포지엄 참가 지원 등
전문연구요원 편입	박사과정 대상 100% 편입 가능
국가 거대연구과제 참여	▪ DGIST 융합연구원 및 소속 9개 센터 (DGIST-LBNL신물질연구소, 마이크로레이저융합 연구센터, DGIST-ETH마이크로로봇연구센터, 고신뢰CPS연구센터, 미래자동차융합연구센터, 태양에너지융합연구센터, 웰니스융합연구센터, 핵심단백질지원센터, 웰에이징연구센터) ▪ 한국뇌연구원 ▪ 기초과학연구원(IBS) 식물노화수명연구단